

# 古代漢語 判斷動詞 ‘是’에 관한 문제

林 明 花\*

## < 目 次 >

1. 머리말	3.1 출현시기
2. 판단동사 ‘是’의 詞性和 後續성분	3.2 유래
2.1 詞性	4. 맺음말
2.2  후속성분	<참고문헌>
3. 판단동사 ‘是’의 출현시기와 유래	

## 1. 머리말

古代漢語 判斷動詞<sup>1)</sup> ‘是’에 관한 문제는 그 출현시기를 말한다고 할만큼, ‘是’가 처음 판단동사로 사용된 것이 언제인지 아직까지 견해가 일치하

\* 江原大 중문과 강사

- 1) 繫詞, 判斷詞라고도 한다. 繫詞라는 용어는 王力이 《漢語史稿》(中冊,p.347)에서 사용하였고, 判斷詞라는 용어는 《暫擬漢語教學語法系統》(1956)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후, 현재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판단문에 나타난 ‘是’가 주어론 다시 지칭하는 複指代詞가 아닐 경우, ‘동사’라는 詞性을 부각하여 ‘판단동사’라 칭하기로 하는데, ‘是’의 詞性이나 기능에 관해서는 2장에서 간단히 다루기로 한다. 한편 고대한어 판단동사에는 ‘是’ 외에 ‘惟’, ‘爲’ 등이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현대한어에서 오직 하나의 판단동사로 존재하는 ‘是’에 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지 않고 있다. 王力이 西漢末에 판단동사가 출현하였다<sup>2)</sup>고 언급한 이후, 西漢末 판단동사 '是'의 출현설은 한때 공인된 견해로 받아들여진 듯 했으나, 그후 이에 관해 반론을 제기하는 논문들, 특히 先秦時期 출현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어 그 결과 최근 출판된 어법서적에서는 대체로 '是'의 판단동사 용법이 先秦시기에 그 맹아를 보였고, 西漢시기에 완성되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 즉, '是'의 판단동사 용법이 先秦이전에 확실히 있었다고 단언하지는 않으면서 西漢출현설을 어느 정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출현시기에 논란이 있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판단문에 사용된 '是'가 指示代詞로 사용된 것인지 判斷動詞로 사용된 것인지 그 詞性を 변별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현대한어의 판단문에서 흔히 판단동사 '是'가 사용되는 것(예1)과는 달리, 고대한어의 판단문은 일반적으로 판단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者, ~也'하는 식(예2)으로 문장 가운데에 다음 어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어기조사 '者'를 사용하고 문미에 판단을 돕는 어기조사 '也'를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흔히 뒷 문장이 길 때 지시대사 '是'를 주어 뒤, 謂語 앞에 놓아 주어를 複指하고 문미에 '也'를 부가함으로써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판단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였다(예3).

(1) 我是學生。

나는 학생이다.

(2) 陳勝者，陽城人也。(《史記·陳涉世家》)

진승은 양성 사람이다.

(3) 夫圖與，昔者先王以爲東蒙主，且在邦域之中矣，是社稷之臣也。(《論語·季氏》)

저 진유는 옛적에 선왕께서 동몽산의 제주로 삼으셨고 또 그 봉지가 우리 나라 안에 있어 왔으니, 이는 사직의 신하이다.

그런데 '是'가 사용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4)와 같은 경우는 '판단동사'로 쓰였다는 것에 대해 異論이 없으나, 예 (5) (6)같은 경우 등은 주어를 복지하는 '指示代詞'로 쓰인 것인지 '판단동사'로 쓰인 것인지 논란이 있다.<sup>3)</sup> 판단동사 '是'가 사용된 문장이나 지시대사 '是'가 사용된 문장이나

2) 王力, <漢語史稿> p.353, 中華書局, 北京; 1980

‘是’의 위치가 主語와 명사어구<sup>4)</sup>사이에 있으며, 두 유형의 문장 모두 ‘是’를 번역하지 않아도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sup>5)</sup>

- (4) 豫章太守顧邵是雍之子。(《世說新語·雅量》)  
예장태수 고소는雍의 아들이다.
- (5) 富與貴，是人之所欲也。(《論語·里仁》)  
부와 귀, 이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 (6) 凡禮義者，是生於聖人之僞，非故生於人之性也。(《荀子·性惡》)  
무릇 예의, 이것은 성인의 작위에서 생긴 것이지 본래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밖의 문제로서 판단동사가 어디로부터 발생하였는가 하는 由來 문제, 그리고 ‘是’의 품사가 무엇인가 하는 詞性 문제, 그 후속성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이 있다. 유래에 있어서는 형용사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sup>6)</sup> 아직까지는 지시대사 ‘是’의 기능이 약화되어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詞性에 있어서는 동사로 보는 견해, 허사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후속성분은 명사어구로 충당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기존의 견해와 그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판단동사 ‘是’는 先秦시기에 출현하였고, 그 유래는 지시대사가 아닌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詞性은 동사로서 그런 만큼 명칭은 繫詞, 판단사가 아닌 ‘판단동사’라 해야 하고, 자신의 뒤에 반드시 명사어구만 이끄는 것은 아니므로 “판단사 ‘是’는 주어와 명사성 위

3) 이외에도 ‘四牧孔阜，六轡在手，駟騶是中，騶騶是騶。(《詩·秦風·小戎》)’ 등의 ‘是’를 빈어전치 표지의 조사로 보는 견해, 판단동사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4) ‘是’ 뒤의 성분이 ‘명사어구’인 것만은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명사어구’라고 표현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지배적으로 보이는 것이 ‘명사어구’이므로 이렇게 표현해 둔다. ‘是’의 후속성분에 관해서는 2.2를 참고로 하기 바람.

5) 물론 복지성분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話用論의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徐德庵, <上古漢語中的繫詞問題>, 《古代漢語論文集》 p.211, 巴蜀書社, 成都:1991

어를 연결시켜주는 단어”라는 일반적 정의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 판단동사 ‘是’와 복지주어로 쓰인 지시대사 ‘是’의 판별기준은 기존의 先秦 출현을 주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也’의 유무에 두어 문미에 ‘也’가 있다면 ‘是’를 지시대사로 본다. 단, 문미에 ‘也’가 있더라도 ‘是’ 앞에 또다른 대사가 있거나 부사가 있는 경우는 판단동사로 본다.

## 2. 판단동사 ‘是’의 詞性和 後續 성분

### 2.1 詞性

현대한어, 고대한어에서 모두 판단동사 ‘是’는 기본적으로 ‘판단’이라는 동일한 문장기능을 가지므로 그 詞性에 대한 이해도 같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먼저 현대중국어에서 이 ‘是’의 詞性和 기능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 살펴본 후<sup>7)</sup>, 고대한어에서의 명칭과 詞性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① 同動詞(黎錦熙, <新著國語文法>): 동사의 附類로서 주어가 무엇인지, 그 종류, 성질, 형태등을 설명하는 것. ‘是’ 뒤의 성분은 ‘補足語’(補語. 영어의 ‘be’ 동사에 상당함.)

② 繫詞(王力, <漢語史稿>·張志公, <漢語語法常識>): ‘是’는 실제 동작을 표시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판단 속에서 判斷語와 被判斷者 사이의 연결도구 역할을 하므로 동사가 아니며, 계사로서 일종의 半虛詞. 판단어의 성분은 주어를 表明해주는 ‘表語’.

③ 동사(呂叔湘·朱德熙共著, <語法修辭講話>): ‘是’는 동사. ‘是’ 뒤의 성분은 ‘表語’. 表語는 명사·대사·형용사·동사·구로 충당.

④ 판단사: <暫擬漢語教學語法系統>(1956)에서 어법의미를 도입하여 처음으로 판단사라고 칭함. 그러나 그 詞性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是+名詞’가 ‘合成述語’를 이룬다고 표현함.

⑤ 판단동사: ‘全國語法和語法教學會議’(1981年 哈爾濱 개최)의 결

7) 이에 대해 鄧福南著, 宋龍準譯 <現代中國語 文法の 諸問題>(中文出版社, 大邱: 1991), pp.38-60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과에 의거하여 제시된 《中學教學語法系統提要》에서는 ‘합성술어’ 설을 취소하고 또 ‘是’는 동사의 부류가 아닌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간략히 하여 ‘판단사’라고 칭한다고 함. 이 《提要》를 근거로 저술된 《新訂中學教學語法釋要》에서는 판단동사라 칭하고 있다.<sup>8)</sup>

이상에서 ‘是’에 관한 詞性과 그 기능에 대해 줄곧 異見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同動詞라고 하는 경우 일단 동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했으나 후속성분을 賓語가 아닌 補語로 보고 있고, 판단사라고 한 경우 ‘是’를 허사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동사라고 확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是’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是’가 다른 일반동사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각각의 견해는 모두 문제점이 있어서 ‘是’를 繫詞라 한다면 뒤에 연계시키는 것이 없는 경우(예 7)에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고, 동동사(영어의 be 동사에 대응)로서 보어를 이끈다는 견해 역시 ‘是’ 뒤에 동사가 오는 경우(예8)도 많은 중국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동사로 보는 견해 역시 ‘是’ 뒤에 명사·대사가 아닌, 형용사나 동사가 오는 경우(예8,9), ‘是’가 어떤 문법범주에 속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 (7) 說得是阿!                      그렇고 말고요!  
 (8) 天下是變了, 變了!          세상이 변했다, 변했어!  
 (9) 他也是難受阿.                그도 괴로워.

그러나 동사가 비명사성성분을 빈어로 갖는 것은 ‘是’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동사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예10,11).

- (10) 老王從來不怕麻煩.        왕은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지 않아.  
 (11) 我愛游泳.                    나는 수영하기를 좋아해.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中學教學語法系統提要》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是’의 詞性을 동사로 보며, 그 명칭은 ‘판단동사’라 해야한다고 본다. ‘판

8) 宋仲鑫, 《新訂中學教學語法釋要》 p.67, 天津教育出版社, 天津: 1987

단사'라고 할 경우, 동사라는 詞性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또 다른 품사들 — 명사, 동사, 형용사 등 — 과 같은 층위에 있는 별개의 품사로 인식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 용어 자체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是'의 詞性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절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한어 연구저서에서는 이상의 '是'를 표현하는 용어로 흔히 '계사'·'판단사'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며, 허사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동사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또 많은 경우 그 기능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문장에서 주어와 위어를 연결시키는 작용을 한다', '주어가 어떠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며, 詞性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판단사'라고 할 경우는 '동사'<sup>9)</sup>로, '계사'라고 할 경우는 '허사'로 보는 경우가 많다<sup>10)</sup>.

또 고대한어에서 판단동사 '是'의 용법은 현대한어에서와 같이 다양<sup>11)</sup>하지는 않지만, 명사성주어와 명사성빈어를 갖는 큰 기능, 즉 '是'가 주어의 類別·성질·상황 등을 나타내는 빈어를 갖는 기능은 고대한어, 현대한어에서 모두 같고, 또 고대한어는 현대한어의 기원이 되고, 현대한어는 고대한어에서 발전한 것이므로 그 詞性은 '동사'로서 동일하며 따라서 명칭도 '판단동사'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

## 2.2 후속성분

대부분의 고대한어 연구서에서는 판단동사 '是'의 기능은 판단문에 쓰여서 主語와 謂語를 연계시켜 주는 것으로서 위어는 명사어구라고 하고 있다.

9) 于長虹, <常用文言虛詞手冊> p.335, 河北人民出版社, 石家莊, 1984; 韓峰嶸, <古漢語虛詞手冊> p.319, 吉林人民出版社, 長春, 1984 등

10) 尹君編著, <文言虛詞通釋> p.419, 廣西人民出版社, 南寧; 1984 와 楊伯峻, 何樂士著, <古漢語語法及其發展> p.713, 語文出版社, 北京; 1992 등에서 繫詞와 동사의 용법을 구별하고 있다.

11) "동사 '是'가 지나는 목적어는 주어의 類別을 표시하는 데 한정되지 않는다. . . . . 판단사 '是'는 왕왕 유관한 사물에 관계하게 되고 관계하는 사물이 바로 목적어이다." (鄧福南, 前揭書, p.51)

① <古代漢語知識辭典>12): 判斷詞, 也叫系詞. 聯系主語和名詞謂語構成判斷的詞. 漢語中典型的判斷詞是“是”. 它在先秦只是代詞..... 漢代開始成爲判斷詞.....

② <古漢語知識辭典>13): 判斷詞, 亦稱“系詞”. 指在判斷句中用來聯系主語和謂語, 以判斷兩者之間是否存在相屬或相等關係的詞. .... 判斷詞不同於一般動詞, .....

실제로 고대한어의 '是字판단문'<sup>14)</sup>의 위어는 (1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명사어구이다.

- (12) 我是宰士, 何可委質于二朝乎? (<風俗通義·十反>)  
나는 宰士(宰相의 屬官)인데, 어찌 두 조정에서 벼슬할 수 있겠는가?
- (13) 豫章太守顧邵是雍之子. (<世說新語·雅量>)  
예장태수 고소는 옹의 아들이다.
- (14) 力士是東郭門外官奴. (<西京雜記>)  
역사는 동곽문 밖의 관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是字판단문'에서 '是'가 갖는 빈어는 명사어구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단동사의 정의는 다시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고대한어에서 '是' 뒤에 명사구가 아닌 주술구, 형용사구, 동사구가 온 경우도 있다.

- (15) 此是欲皆在爲王, 而憂在負海.<sup>15)</sup> (<戰國策·中山策>)  
이는 왕이 되려는 데 욕심이 있는데, 제나라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 (16) 庾曰:“君復何所憂慘而忽瘦?” 伯仁曰:“吾無所憂, 直是清虛日來, 滓穢日去耳.”(<世說新語·言語>)  
庾亮이 “그대는 또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갑자기 말랐는가?”하니, 伯仁이 “나는 근심하는 바가 없오. 그저 청허함이 나날이 오고, 더러운 찌꺼기가 나날이 사라질 따름이오.”라 하였다.

12) 向熹主編, <古代漢語知識辭典> p.133, 四川人民出版社, 成都: 1988

13) 羅邦柱主編, <古漢語知識辭典> p.185, 武漢大學出版社, 武昌: 1988

14) 논의의 편의상 '是'가 판단동사로 사용된 판단문을 '是字판단문'이라 하기로 한다.

15) 高誘撰, <戰國策高氏注>에서는 '負海'를 '負海,齊也'라고 주하고 있다. 즉 이 어구는 '齊나라라는 존재때문에 걱정을 한다'라는 의미이다.

(17) 號咷大哭是尋常。(《敦惶變文集·董永變文》)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 보통이다.

(18) 實不是愛微軀，又非關足無力。(杜甫 <僦仄行>)

진실로 미천한 몸을 아껴서가 아니요, 또 발에 힘이 없어서도 아니다.

비록 적은 예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수량의 多過로 어떤 어법현상의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판단동사 ‘是’를 사용하지 않은 판단문도 일반적으로 명사어구가 위어이지만 비명사성성분인 것도 상당히 있다.

(19) 居上位而不恤其下，驕也。(《新序·雜事》)

위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20) 庠者，養也。(《孟子·滕文公·上》)

庠이란 가르쳐 키운다는 뜻이다.

예 (19)의 위어는 형용사이고 (20)은 동사인데, 이러한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정의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어쨌든 ‘무엇이 어떠한가’는 판단을 내리는 것임은 위어가 명사어구인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판단문의 발전은 ‘無판단동사 판단문’에서 ‘有판단동사 판단문’으로 이루어지므로, 좀더 세밀하게 많은 자료를 조사할 경우 ‘是’의 빈어가 명사어구가 아닌 것이 상당량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셋째, 현대한어에서 판단동사 ‘是’의 용법은 고대한어에서와는 달리 매우 다양하다.

(21) <史記>的作者是司馬遷。

<史記>의 작자는 사마천이다.

(22) 寫這篇文章的是他。

이 문장을 쓴 사람은 그다.

(23) 他是病了，不然怎麼會不來呢？

그는 병에 걸렸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

(24) 天氣是冷了，中午水也不化了。

날씨가 몹시 추워서 정오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다.



(25) 到處都是樹.

곳곳이 다 나무이다.

예 (21) (22)는 ‘是’의 빈어로 명사, 대사가 쓰였으며 판단을 나타낸다. 예 (23) (24)의 빈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판단을 나타내는 동시에 강조를 나타낸다. 예 (25)의 빈어는 명사인데 판단을 나타내는 동시에 존재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현대한어의 ‘是’에는 많은 용법이 있다. 비록 이제까지 고대한어에서 현대한어에 대응되는 이러한 용법이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어현상은 돌연히 無에서 有가 생겨날 수는 없는만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한어에 그 來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한어에 있어서나 현대한어에 있어서나 판단동사는 ‘계사’라는 단어의 자가 시사하듯 단순히 주어와 위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며, 주어가 무엇이라고 혹은 어떠한다고 판단을 내리는 동사로서 다른 일반동사와 마찬가지로 명사성어구만이 아닌 비명사성어구를 빈어로 가질 수 있으므로 판단동사 ‘是’를 주어와 명사성위어를 연결해주는 단어라고 정의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판단동사 ‘是’는 빈어를 동반하여 주어에 대해 모종의 판단을 내리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는 동사”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

### 3. 판단동사 ‘是’의 출현시기와 유래에 관한 문제

#### 3.1 출현시기

‘是’의 판단 용법 출현시기는 先秦時期, 西漢末에서 東漢初<sup>16)</sup>, 西漢初, 심지어는 東漢 이후<sup>17)</sup> 라는 등으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를 크게

16) 王力이 대표.

17) 張汝舟, 《二母室漢語語法論叢》 pp.189-190(唐鈺明, <上古判斷句的變換考察> 《中國語文》 1991년 제54기, p.388에서 再引).

선진시기 출현과 서한출현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장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先秦출현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西漢출현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선진시대의 자료에서 '是'자 뒤에 명사어구가 있으면 '是'를 무조건 지시대사로 보는 태도, 선진시기에 판단동사로 보이는 '是'가 있어도 그 예는 매우 보기 어려우므로 우연한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후인이 傳寫하는 중의 착오로 말미암아 후대의 어법성분이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6) 駟馬是中, 駟馬是駟. (<詩經·秦風·小戎>)  
 일족말·절따말은 북마로 삼고, 공골말·가라말은 참마로 삼는다.
- (27) 不顯申伯, 王之元舅, 文武是憲. (<詩經·大雅·崧高>)  
 밝은 덕 지닌 신백은 왕의 외숙인데, 문왕·무왕을 본보기로 삼았다.
- (28) 是是竹筴 | 是是蒿筴 | 是是苜蓿(馬王堆帛書·天文氣象雜占·筴星圖注文)<sup>18)</sup>  
 이는竹筴이다. | 이는蒿筴이다. | 이는苜蓿이다.
- (29) 人毋故, 鬼攻之不已, 是是烈鬼. (睡虎地秦墓竹簡·日書)<sup>19)</sup>  
 사람에게 아무 까닭이 없는데 귀신이 그치지않고 공격한다. 이것은 烈鬼이다.
- (30) 韓是魏之縣也. (<戰國策·魏策>)  
 한, 이는 위나라의 현이다.
- (31) 和氏之璧, 隋侯之珠, 三棘六異, 此諸侯之所謂良寶也. ……而和氏之璧, 隋侯之珠, 三棘六異, 是非天下之良寶也. (<墨子·耕柱>)  
 화씨벽·수후의 주·九鼎, 이것은 제후가 말하는 좋은 보물이다. …… 그러나 화씨벽·수후의 주·九鼎, 이것은 천하의 좋은 보물이 아니다.
- (32) 凡禮義者, 是生於聖人之僞, 非故生於人之性也. (<荀子·性惡>)  
 무릇 예의, 이것은 성인의 작위에서 생긴 것이지 본래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33) 富與貴, 是人之所以欲也. (<論語·里仁>)  
 부와 귀, 이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18) 竹筴, 蒿筴, 苜蓿는 혜성 이름. 이들 문장은 秦漢의 분묘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고중에 의하면 戰國후기의 작품이라 함. 이외에도 동일한 문장구조를 보이는 약간의 출토자료가 더 있다.

19) 上同.

- (34) 問今是何世。(《桃花源記》)  
 지금이 어느 세상인가 물었다.
- (35) 豫章太守顧邵是雍之子。(《世說新語·雅量》)  
 예장태수 고소는 옹의 아들이다.
- (36) 劉子政·子駿·伯玉三人，俱是通人。(《新論·識通》)  
 유자정·자준·백옥 세 사람은 모두 통달한 사람이다.
- (37) 荊州謂禪衣曰布襦，亦是襦褌。(《釋名·釋衣服》)<sup>20)</sup>  
 형주에서는 禪衣를 포족이라 하는데, 역시 襦褌이다.

이상 예문 중 (26)-(32)에 보이는 '是'는 선진출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시한 판단동사 '是'이다. (33)은 서한출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출현설을 주장하는 들도 '是'가 지시대사로 쓰였다고 인정하는 문장인데, 일부 선진출현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이 경우의 '是'도 판단동사라고 본다. (34)-(37)은 '是'가 판단동사로 쓰였다는 것에 이론이 없는 漢代이후의 자료이다. 여기서 예문 (26)-(29)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진시기 자료에서 수집한 예문들은 모두 판단어기조사 '也'가 문미에 있는데, 漢代 이후 자료인 (34)-(37)에는 판단어기조사 '也'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漢代에 와서 복지주어 '是'와 어기조사 '也'로 구성된 판단문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주어+是(판단동사)+명사성성분'과 '주어+是(복지대사)+명사성성분+也'의 구조가 병행하여 사용되었는데, 앞의 구조보다는 뒤의 구조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예문 (26) (27)의 경우, 선진출현설을 주장하는 경우는 '是'를 판단동사로, '是'에 후속하는 '中' '中' '憲'을 명사로 본다. 그러나 선진시대에는 흔히 빈어를 강조하기 위해 위어 앞으로 前置시키면서 전치된 빈어와 위어 사이에 '是'나 '之'를 부가하였다. 이때 이 '是'나 '之'는 助詞로서 빈어 전치표지이다.<sup>21)</sup>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빈어전치 표지의 조사이고, '是' 뒤의 '中' '中' '憲'은 명사가 동사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 '禪衣'는 홑옷을 말함(禪衣言無裏也。《釋名·釋衣服》)。'褌'은 위아래가 붙은 옷을 말함(褌，屬也，衣裳上下相聯屬也。《釋名·釋衣服》)。'襦褌'는 등걸이, 담받이를 말함(襦褌，汗需，陳魏宋楚之間謂之襦褌。《方言》)。

21) 助詞가 아닌 複指代詞로 보는 견해도 있다(王力)。

예문 (28) (29)는 문두에 ‘是’가 중복하여 나타나는데 첫 번째 ‘是’는 지시대사, 두 번째 ‘是’는 판단동사로 보인다.<sup>22)</sup> 예문 (30) ‘韓是魏之縣也’의 ‘是’는 판단동사로 보이기도 한다. 지시대사 ‘是’가 복지주어로 쓰일 때는 흔히 앞 문장이 길 때, 문장을 간결하게 보이고 판단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예문 38).

(38) 千里而見王，是予所欲也。(《孟子·公孫丑下》)

천리 길에 왕을 만나보러 온 것, 이것은 내가 바래서 한 일이다.

그런데 예문 (33) ‘富與貴，是人之所欲也.’의 주어 ‘富與貴’는 예문 (38)의 ‘千里而見王’보다 짧다. 그래서 이 경우의 ‘是’를 복지대사로 보는 견해에 있어서도 지시대사 ‘是’의 지시성이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是’ 앞의 어구가 ‘한 글자’로 되어있는 이러한 문장의 경우에는 ‘是’의 지시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판단동사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미에 여전히 판단어기사 ‘也’가 존재하고 있다.

사실 예문 (30)-(33), (38)은 모두 ‘是’의 詞性이 무엇이건간 이를 삭제 하여도 각각은 삭제하기 전의 문장과 의미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대사를 판단동사로 오인하기 쉬운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판단문의 구조’와 ‘복지대사의 기능’이다. 우선 판단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동사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또 긍정·부정의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문의 문미에 ‘也’가 위치하고, 복지대사가 쓰인 판단문의 문미에도 ‘也’가 위치한다. 그러므로 ‘也’는 판단을 나타내는 어기조사로서 ‘판단성’을 지니며 판단문을 구성하는 필수성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陳勝者，陽城人也。(《史記·陳涉世家》) 진승은 양성 사람이다.

(3) ……，是社稷之臣也。(《論語·季氏》) ……， 이는 사직의 신하이다.

22) 이 분표에서 출토된 자료는 최근에 발견된 것이므로, 王力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것이다. 또 왕력 외에 西漢 출현을 주장하는 견해는 이 자료를 선진시기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39) 故王之不王，非挾泰山以超北海之類也... (《孟子·梁惠王上》)

그러므로 왕이 왕노릇 못하는 것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이 아니다.

복지대사를 사용하는 것은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또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지시대사 ‘是’는 특히 긍정을 나타내는 판단문에 흔히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복지대사로 사용된 ‘是’는 지시성을 지니고 ‘也’는 판단성을 지니며 ‘是.....也’로 구성된 판단문은 ‘지시성·긍정성·판단성·강조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복지대사 ‘是’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어 강조 기능이 없어지고, ‘也’를 사용하지 않으면 ‘판단’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是’를 삭제해도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화자의 의도와 청자가 받아들이는 효과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是’의 지시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해도 문미에 판단어기사 ‘也’가 있는 경우는 ‘是’가 여전히 지시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문 (32) ‘凡禮義者，是生於聖人之僞，非故生於人之性也.’의 경우, 선진 출현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예문을 현대한어로 번역하면 ‘是~, 不是’의 문장이 된다고 하며 ‘是’를 긍정계사, ‘非’를 부정계사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非’는 판단동사가 아닌 단순한 부사이다. 상고한어에서는 형용사위어나 동사위어를 부정할 때는 ‘不’를 사용했고, 명사위어를 부정할 때는 ‘非’를 사용했다. ‘是’ 역시 판단동사가 아닌 앞의 어구 ‘凡禮義者’를 복지하는 지시대사로 문미에 판단어기사 ‘也’를 동반하고 있다.

이상에서 예문 (26)(27)의 ‘是’는 빈어전치 표지로 사용된 助詞이고 (28)(29)의 ‘是’는 판단동사이며 (30)-(33)에 나타난 ‘是’는 판단동사가 아닌, 주어를 복지하는 지시대사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西漢출현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선진시대에 나타난 ‘是’는 단지 지시대사로서 우연히 판단동사와 유사한 용법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아직은 맹아상태의 것이라 한다.<sup>23)</sup> 다음 예문 (40)-(42)는 西漢시기의 자료이다.

- (40) 余是所嫁婦人之父也。(《論衡·死僞篇》)  
 나는 (네가) 시집을 보내 준 부인의 아버지이다.
- (41) 此必是豫讓也。(《史記·刺客列傳》)  
 이는 반드시 예양이다.
- (42) 覆夷氏是其後也。(《論衡·龍虛篇》)  
 종이씨, 이는 그의 후예이다.

선진출현설, 서한출현설을 막론하고 예문 (40)-(42)에 나타난 '是'는 판단동사라는 것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즉 '是'는 복지대사로서의 기능, 즉 지시성과 강조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연계기능만이 남아 판단동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40)은 '是' 앞에 또 다른 대사가 주어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시 지시대사 '是'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是'는 지시대사일 수 없고, (41)은 주어 '此'와 '是' 사이에 부사 '必'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한어 대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볼 때, 역시 지시대사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문 (42)의 구조는 앞서 선진출현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근거로 제시한 '韓是魏之縣也.'(고유명사+是+명사성어구)와 구조가 같다. 본고에서는 (40)(41)의 '是'는 판단동사로 보고 (42)의 '是'는 지시대사로 보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是.....也' 판단문에서 '是'는 지시성을 가지고 '也'는 판단성을 가지며, 이 복지주어 '是'와가 판단어기사 '也'가 함께 사용된 문장은 '지시성·긍정성·강조성·판단성'을 가진다. 현대한어로 해석할 경우, '是'—복지대사건 판단동사이건 詞性에 관계없이—를 삭제하여도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각각의 문장이 갖는 수사적인, 혹은 화용적인 기능은 달라진다. 즉 '韓是魏之縣也.'는 선진시기 자료인데 이때의 '是'는 지시대사로서 복지주어로 사용되는 것('富與貴, 是人之所欲也.')이 지배적이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주

23) 吳仁甫著, 《文言語法三十辨》, p.212, 華東師範大學出版社, 上海; 1988

어+是+위어+也’의 구조를 갖는 문장인 ‘韓是魏之縣也.’의 ‘是’가 갖는 ‘지시성’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동시에 ‘긍정성·판단성·강조성’을 잃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한시기에 나온 문장인 ‘余是所嫁婦人之父也.’·‘此必是豫讓也.’의 경우는 문미에 판단어기사 ‘也’가 있기는 하나 판단동사이다. 전자의 경우 문두에 이미 대사가 있는데 또 다시 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으므로 지시대사가 아니라고 하겠다. 즉 이들 문형은 중고시기에 이르러 ‘是’자 판단문이 완전히 성숙 — 문미에서 ‘也’가 탈락 — 되기 전까지의 과도적 표현이라 하겠다.

둘째, ‘지시성의 약화’라는 개념은 판단동사 ‘是’는 지시대사 ‘是’가 점차로 허화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판단동사 ‘是’는 지시대사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형용사 ‘是’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sup>24)</sup> 즉, ‘豫章太守顧邵是雍之子’의 ‘是’와 ‘韓是魏之縣也’의 ‘是’는 각각 ‘동사’와 ‘지시대사’로서 전혀 다른 품사이다. 고대한어에서 지시대사 ‘是’는 명사성성분으로서 주어·빈어·위어, 특히 복지주어와 빈어로 쓰였는데, 이것이 약화 내지 허화되어 문장의 주요부분인 술어동사가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되기 어렵다. 더우기 앞장 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판단동사 ‘是’는 주어와 위어를 연계시키는 기능만 하는 ‘허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是……也’ 형식을 갖는 문장은 복지대사 ‘是’가 사용된 판단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판단동사 ‘是’와 지시대사 ‘是’의 구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판단문에서 판단어기사 ‘也’가 없이 나타난 ‘是’가 진정한 판단동사이다.

24) 이에 관해서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豫章太守顧邵是雍之子。(《世說新語·雅量》)

예장태수 고소는 옹의 아들이다.

甲乙是其名。(《論衡·詰術》)

갑을은 그의 이름이다.

- ② '주어 + 부사(乃·必등) + 是 ..... 也' 혹은 '대사주어 + 是 ..... 也'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판단문의 '是'는 판단동사이다. 중고시기에 판단문이 완전히 성숙되어 대량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余是所嫁婦人之父也。(《論衡·死偽篇》)

此必是豫讓也。(《史記·刺客列傳》)

- ③ '주어 + 是.....也'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판단문의 '是'는 '지시대사'로서 복지주어이다(선진시기의 자료이든, 그 이후의 자료이든 불문).

韓是魏之縣也。(《戰國策·魏策》)

驪夷氏是其後也。(《論衡·龍虛篇》)

富與貴, 是人之所以欲也。(《論語·里仁》)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是'는 이미 先秦시기에 판단동사로 쓰였으며, 한대에 와서 흔히 보이기 시작했고, 中古시기<sup>25)</sup>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모습 —문미에 판단어기조사 '也'를 동반하지 않은— 으로, 또 대량으로 쓰였다고 하겠다. 물론 선진시기에는 '是'가 지시대사로서 문장에서 복지주어로 쓰인 것이 지배적인 현상이었고, 판단동사로 쓰인 것은 극소수의 예에 불과하지만, 어떤 언어현상의 존재여부의 결정은 量的인 것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先秦시기에 이미 판단동사로 쓰였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

25) 中古時期: 魏晉南北朝·唐. 특히 魏晉南北朝시대.



### 3.2 유래

판단동사 '是'가 지시대사 '是'에서 연변되었다는 설은 학계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듯하다.<sup>26)</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시대사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 형용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 이의 논의를 위해 먼저 '是'의 본의와 고대한어에서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갑골문에는 '是'가 보이지 않고, 金文에 보인다. 그 자형은 𠄎 로서 무늬가 있는 손가락( 𠄎 )과 손( 𠄎 )을 본뜬 것에 止聲( 止 )이 더해져서 이루어져있다. 이것은 후에 만들어진 '匙'의 본자로서 本義는 '손으로 손가락을 들다'·'손가락'이다. 그런데 후에 발을 상형한 글자인 '止'에서 소리를 가져올 때 의미도 따라와서 다리의 동작을 나타내는 '直進하다'에서 '直', 즉 '곧바르다'라는 의미가 생기게 되었다.<sup>27)</sup>

《說文》에서는 '是'를 '直也, 從日正'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段玉裁는 '天下之物, 莫正於日也'라 주하였고, 朱駿聲은 "《易·未濟》: '有孚失是.' 虞注: '正也.' 《楚語》: '王弗是.' 注: '理也.' 《荀子·勸學》: '使目非是, 無欲見也.' 注: '謂正道也.' 《淮南·脩務》: '立是廢非.' 注: '善也.'"<sup>28)</sup>라 注하였다.

이상에서 '손으로 손가락을 들다'·'손가락'이라는 본의를 지닌 '是'는 造字 직후 그 본의를 잃어버려 이미 선진시기에 '옳다, 틀림없다, 곧다, 바르다'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의미는 다리의 동작에서 온 '곧바로 (가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고 또 《說文》의 '直也'라는 해석도 여기서 유래한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是'가 지시대사 '此'의 의미로 쓰인 것은 본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假借되어 쓰인 것이다.

26) 王力, 《漢語史稿》, p.353; 吳仁甫, 《文言語法三十辨》, p.212; 香坂順一, 《中國語學入門》, p.67 등

27) 藤堂明保, 《漢語語源辭典》 P.461, 學燈社, 東京, 1965; 達世平·沈光海編著, 《古漢語常用字源字典》 P.217, 上海書店, 上海, 1989; 白川靜, 《字統》 P.492, 平凡社, 東京, 1985

28) 周緒全·王澄愚編著,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p.323, 重慶出版社, 重慶: 1991

이렇게 자원으로 볼 때 판단동사 '是'가 지시대사 '是'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형용사 '是'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로 상고한어에서는 '是'가 지시대사로 가차되어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형용사로 쓰인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 형용사의 應動用法도 상당히 보인다.

(43) 前日之不受是, 則今日之受非也. (《孟子·公孫丑下》)

전일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오늘 받은 것은 잘못이다.

(44) 國君之所是, 必皆是之. (《墨子·尙同》)

나라임금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반드시 모두 그것을 옳다고 여겨야 한다.

예문 (43)의 '是-非'는 '옳다, 그르다'의 의미이다. 이렇게 '是'는 상고한어에서 이미 형용사 '是·非'와 대사 '彼·是'의 용법이 있었다. '是·非'의 '是'가 지시대사 '是'에서 연변된 것이라면, 이와 대응되는 '彼·是'의 '非'는 '彼'에서 연변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실제의 언어현상은 그렇지 않다. 예문 (44)은 형용사 '是'가 동사적으로 쓰여 '옳다고 여기다(認爲正確)'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미 상고시대에 '是'가 지시대사로 쓰였을뿐만 아니라 형용사, 동사로도 쓰였다. 그런데 이 '옳다, 그르다'나 '~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 판단한 결과 내린, 긍정 혹은 부정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是'의 앞에 대사주어가 있거나, '是'가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지시성·긍정성·강조성·판단성'을 지닌 '주어+是+위어(=빈어)+也'의 판단문이 '지시성·강조성'을 잃고 '긍정성·판단성'을 갖는다는 것, 즉 지시대사가 약화되어 동사로 변했다는 논리보다는 '판단성·긍정성'을 갖는 형용사의미에서 '판단성·긍정성'을 갖는 판단동사 용법이 산생되었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詞性이 어떻든간에 우연하게도 '是'라는 자형이 같고 사용된 문형이 같기는 하지만, '복지대사'를 사용한 판단문과 이를 사용하지 않은 판단문은 그 문장기능, 즉 쓰이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대한어의 판단동사 '是'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漢語는 印歐語와는 달리 형태가 풍부하지 않은 언어이고 또 漢字는 表意文字이므로 구조를 고려하는 동시에 자연히 낱자의 의미, 그리고 전체적인 문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고대한어는 현대한어와는 달리 문장의 구조가 간결하므로 더욱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판단동사 '是'가 사용된 판단문과 지시대사 '是'가 사용된 판단문 모두 '是'의 위치는 주어와 명사어구 사이이다. 바로 이것이 의미가 중시·강조되는 고대한어에서 판단동사의 판별을 어렵게 하고, 따라서 그 출현시기의 확정에 논란이 있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고 본다.

이제까지의 살펴본 결과로는 판단동사 '是'는 이미 先秦시기에 출현하였고, 兩漢시기에 자주 보이게 되었으며, 中古시기에 완전히 성숙된 판단동사로 확정되어 대량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유래는 지시대사가 아닌 '是非(옳고 그름)'의 '是'를 의미하는 형용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詞性은 동사로서 그런만큼 판단사, 繫詞가 아닌 '판단동사'라 칭해야 하며, 문장기능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주어와 명사성위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닌, 빈어를 이끌어 이와 함께 다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주어에 대해 모종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는 초보적 고찰로서 충분한 자료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판단동사 '是'의 출현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시대사 '是'와 판단동사 '是'의 판별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문헌자료를 가지고 엄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하며, 특히 판단동사 '是'의 유래와 함께 고찰해야만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北京; 1980
- 藤堂明保, <漢字語源辭典>, 學燈社, 東京; 1965
- 連世平·沈光海編著, <古漢語常用字字源字典>, 上海書店, 上海; 1989
- 周緒全·王澄愚編著,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重慶出版社, 重慶; 1991
- 百川靜, <字統>, 平凡社, 東京; 1985
- 香坂順一著, 鄭憲哲編譯, <中國語學入門>, 高麗苑, 서울; 1986
- 張學賢編著, <古漢語語法比較>, 陝西人民教育出版社, 西安; 1991
- 吳仁甫著, <文言語法三十辨>, 華東師範大學出版社, 上海; 1988
- 楊伯峻·何樂士著,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 鄧福南著, 宋龍學譯, <現代中國語文法の諸問題>, 中文出版社, 大邱; 1991
- 宋仲鑫, <新訂中學教學語法釋要>, 天津教育出版社, 天津; 1987
- 伍宗, <古代漢語題解辭典>, 四川辭書出版社, 成都; 1988
- 羅邦柱主編, <古漢語知識辭典>, 武漢大學出版社, 武昌; 1988
- 向熹主編, <古代漢語知識辭典>, 四川人民出版社, 成都; 1988
- 于長虹等, <常用文言虛詞手冊>, 河北人民出版社, 石家莊; 1984
- 尹君編著, <文言虛詞通釋>, 廣西人民出版社, 南寧; 1984
- 韓峰嶸, <古漢語虛詞手冊>, 吉林人民出版社, 長春; 1984
- 何樂士外, <古代漢語虛詞通釋>, 北京出版社, 北京; 1989
- 張柏青, <再論漢語系詞‘是’的產生時代>, <語言學論文集> PP.222-234, 安徽教育出版社, 合肥; 1989
- 周有斌, <“是”字句研究述評>, <語言文字學>, pp.118-121; 1993.1
- 董希謙, <古漢語系詞“是”的產生和發展>, <語言文字學>, pp.99-103; 1985.5
- 徐德庵, <上古漢語中的繫詞問題>, <古代漢語論文集> PP.207-224, 巴蜀書社, 成都; 1991
- 徐德庵, <論語一書中的‘斯’‘是’兩個詞>, <古代漢語論文集> PP.318-328, 巴蜀書社, 成都; 1991
- 唐鈺明, <中古“是”字判斷句述要>, <中國語文> PP.394-399; 1992.5
- 唐鈺明, <上古判斷句的變換考察>, <中國語文>, pp.388-389; 1991.5
- 周尚義, <「詩經」“是”字用法淺析>, <語言文字學>, PP.52-58; 1985.7